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 명예교수·미술사학자

제주비엔날레의 미래를 생각하자

제주비엔날레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립미술관장이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동시에 맡는다는 언론 보도가 논쟁의 초점이다. 혹자는 미술관이 국제미술전을 주최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의 순서를 거꾸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에 자리 잡은 수백의 미술관 사업과는 별도로 16개 이상의 비엔날레를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이렇다. 미술관과 비엔날레는 근본적으로 다른 설립 목적과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외과와 내과를 구분하는 것처럼 미술관과 비엔날레에 주어질 소명과 책무도 저마다 다르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미술행사들로서 제주미술제와 제주도미술대전, 비엔날레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이유와 같다.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문제의 일차적 원인은 제주도정의 삭감된 예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제주도는 금년 도내 공립미술관의 작품 구입예산 전체를 제로화해 버렸다고 한다. 4회 제주비엔날레의 경우에도 전행사 대비 30% 정도가 줄어들었다.

제주비엔날레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문제 원인은 행사 조직과 운영 방식이다. 우리나라 비엔날레의 운영방식은 주관(주최) 조직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

는 독립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광주비엔날레(재단)와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경우이며, 후자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서울시립미술관)이나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대전시립미술관)의 경우다.

각각의 조직과 운영 방식은 저마다 장단점이 따른다.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경우 안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행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되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술관이 비엔날레를 치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나, 미술관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인력이 성격이 다른 행사에 투입되

어 내부적 갈등과 논란이 생겨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제주비엔날레의 경우는 미술관이 주최하는 체제로 시작되었다. 1회에서 3회에 이르는 동안 행사에서 보여준 작가와 영역사 그리고 미술관 사이의 분쟁과 갈등은 이미 도내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다. 4회에도 13억원 예산 중 약 8억원이 운영비로 제시되어 있다.

시하 제주도립미술관장이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자진해서 맡겠다는 발언은 제주비엔날레의 존속을 위한 교육정책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주비엔날레의 미래는 예측 불능이다. 제주비엔날레의 미래는 전적으로 주최 기관의 수장인 제주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지속가능한 전문 조직을 설치하는 일일 것이다.

사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3인의 역할

4·10 총선에서 당선된 제주시갑 문대립, 제주시을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근 후보가 선거 뒷날 한자리에 모였다.

한라일보를 비롯한 언론4사 초청 당선인 특별대담에서 이들은 제주 선거결과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과 제주 홀대론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물론 대통령의 4·3추념식 불참과 민생토론회 제외 등을 사례로 들었다.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물음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섬에 사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이었다. 추가배출비 등 불투명 비용의 삭감, 민생경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해법도 꺼내놓았다. 현안 역시 3인 협력을 다짐했다.

뒤집어보면 제21대 국회에서 제주현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야 입장이 바뀌는 등 정치적 지형이 달라진 이유도 있었지만 다소 무기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도민들은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 정권 심판에 따른 반대급부로 비쳐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을 선택했다.

도민들은 문대립, 김한규, 위성근 당선인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긴 셈이다. 국회 300석 중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결국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3명이 제주를 물론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능력이 안 되면 과감히 내려놓는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활약하는 선량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 출신·연고 당선인과 네트워크도 중요

제22대 총선에서 제주 출신 및 제주와 연고가 있는 당선인이 7명 배출됐다. 제주 지역구 의석은 3명인데 불과한데, 이보다 훨씬 이상 많은 제주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 당선인이 배출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당선인들은 여야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등으로 골고루 포진한 점도 눈에 띈다.

제1당을 차지한 민주당에서는 추자면 신양리 출신 김정호 당선인(경남 김해시을)이 3선, 구좌읍 하도리 출신 부승찬 당선인(경기 용인시병)이 초선이고, 제주 사위인 한준호 당선인(경기 고양시을)이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주 해녀의 딸이라고 자부하는 김미애 당선인(부산 해운대구을)이 재선, 제주 머느리인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5선 고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는 남원읍 신흥리 출신 정춘생, 외가가 애월읍으로 알려진 신장식 당선인이 있다. 면면에서 보듯이 초선부터 당대표급 중진까지 많고 있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120만 재외제주도민의 일원이기도 하고, 제주와 직간접적인 연고를 맺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도세가 약한 제주도로서는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구하는 창구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섬은 고립과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륙과 해양을 향해 열려있다.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제주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마당

고사리 채취 이것만 지켜주세요



이승하 제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이맘때면 고사리 채취 하러 갔다가 실종되는 노인들 찾는 신고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위험 신고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를 경험한다. 3월 말부터 약 보름간 고사리 관련 112신고만 거의 100건에 육박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하면서 느낀 고사리 채취 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사리 채취하기 위해 한 라산 중턱이나 중산간지역으로 들

어가는 것은 기본이다. 해당 지역은 기지국이 많지 않아 휴대전화의 지속적인 기지국 접속 시도로 휴대전화 배터리 소모량이 훨씬 많다. 따라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90% 이상 충전해 꼭 소지하고, GPS 기능을 켜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채취객들은 대부분이 중산간지역 길 가장자리에 주차한다. 최근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운행 차량과 부딪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조금 건너라도 험터나 교통신호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고사리를 채취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등에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헬기, 드론 등 첨단 장비 등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개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각종 안전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뉴스-in

“탐방객들 양서류 서식지 훼손 우려”

금오름 분화구 돌담 제거

○...제주도가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돌담 제거 등 정비를 추진해 눈길.

금오름에 위치한 금오름은 사유지로 유기물이 풍부한 분화구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꽂이를 비롯해 제주도롱뇽, 큰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방객들이 주변 돌담을 지속적으로 옮겨 분화구 내에 돌담을 쌓아 양서류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이에 도는 사전에 소유주와 정비 계획을 논의해 제주시와 합동으로 분화구에 쌓인 돌담들을 허물어 서식지가 유지되도록 주변을 정리.

고물가에 착한가격업소 확대

○...서귀포시가 고물가 속에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상반기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 예정.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4월 현재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83곳으로 이들 업소에는 탐나는 전 상품권 20만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과 함께 업소당 전기·가스 요금 등 최대 207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상·하반기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와 평가로 지정되는데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부고

현은택 어머니 제주양씨 영일(前 한국 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여성부회장·향년 67세)께서 서기 2024년 4월 13일 오후 11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4년 4월 16일(화요일)
▶발인일시: 2024년 4월 17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해안동 선영

남 편 현장열
아 들 현은택 며느리 최미연
딸 현명은 사 위 김민석

※ 연락처 : 현은택 010-3226-553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공래 (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4년 4월 15일
아 들 문장문
문장봉 며느리 광재정
딸 문채영 사 위 송상보
문숙경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군위오씨 문지(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4년 4월 15일
남 편 김순언
아 들 김형훈 며느리 고선영
딸 김은영 사 위 유희연
은정 고경원
미정 김대신
민정

해산 및 채권채출 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3월 29일 사원원서면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사오니 당사에게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제 익일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유한회사 산방모래산업
서귀포시 인덕면 화순해안로 40, 2층
청산인 지창석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변한철(1975.07.02.생)
· 최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북2길 9(상가리)
상기자는 2024년 2월 6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4년 4월 8일 제주지방법원 2024년단147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14, 1802호(연동, 도원스카이라워빌)
2024. 4. 15.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변승철, 변윤숙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안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농업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2696-9876

왕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왕칠나무의 효능

- ★ 혈액순환 촉진 ★ 긴기능 개선
★ 생육 촉진 ★ 항암·항산화 효과

왕칠발효액의 효능

- ★ 소화 흡수율 상승 ★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 요리시 원액 : 물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약6시간 이상 침적할 경우 육질이 부드러워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 음용시 원액 :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왕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출 70대 수의사(김상훈)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모지매매

연동 2488-439

모지매매(문중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 010-3699-0254